



“북한 봉괴론에 근거한 통일·선교전략 재검토를”

‘2018 기독교통일포럼 열린포럼’
아주대 조정훈 교수 발표



같등에서 평화로.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북한 선교의 새로운 관점은 제시하는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 조정훈 교수(아주대 통일연구소)는 한국교회 대다수(?)가 내다봤던 ‘북한 봉괴론’에 근거한 통일과 선교전략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조정훈 교수는 지난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8 기독교통일포럼 열린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통일환경과 선교환경의 변화”란 주제로 발표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북미관계는 상당 기간 대화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하고, “최소 미안선이 있는 2019년 말까지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 내다봤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대화와 화해의 장으로 급변한 것과

관련, 조 교수는 “한국과 미국, 중국까지 핵위협 해소를 위해 북한의 내부적 봉괴전략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며 “통일을 준비하는 기독교계도 변화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을 ‘통한’ 통일 선교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사단에 사로잡힌 정권이라는 표

현으로 상징되는 북한정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들 정권을 친양하고 도와주는 뜻이 아니라, 현재 북한 사회를 통제 관리하는 힘을 인정하고 그를 안에서 선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했다.

이어 조 교수는 “현 상황을 확대해석해서 북한 직접 선교를 위해 너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는 “남북교류는 확대되지만 민간교류 자유화 등 북한의 직접선교에 필요한 환경이 단기간에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큰 기대감을 차분히 긴 호흡으로 기독교계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은 유용하지만, 그 뒤로 북한 경제 사회에 불어온 엄청난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비록 우리 정부에서 종교계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보이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종교에 대한 거부감 특

히 기독교에 대한 경계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고 말하고, 더불어 “정부와 수많은 대북지원 단체들이 계획하는 분야와 사업에 교회와 기독교 단체까지 뛰어들어 종복과 혼란을 가져오기 보다는, 현재의 통일준비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분야가 무엇 인지를 분석하고 그 부분을 기독교가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했다.

조 교수는 또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북한은 지난 90년 대 말 고난의 행군시절과 같이 굶어죽는 사화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2016년 성장률이 3%에 달하고 있고 평양과 대도시에는 이미 초기 자본주의적 변화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교회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북한 주민들과 접촉·교류할 시간이 올 때, 이와 같은 고정관념으로 접근하면 큰 실수를 범할 것”이라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배우는 심정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특히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과 많은 교류를 했던 이들의 과거 경험은 유용하지만, 그 뒤로 북한 경제 사회에 불어온 엄청난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목회자와 선교

단체 임원을 넘어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북한을 바로 알고 바람직한 통일전략 선교전략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교류가 본격화되면, 교회와 선교 단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기독교 평신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접촉하며 사업과 투자활동을 벌릴 것”이라며 “아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돈과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선교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 했다.

때문에 그는 “교회 차원에서 북한 진출

전략과 함께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알고 공부하는 노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남한 기독교인들이 북한 주민들의 눈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 번 깨끗하게 만드는 회개와 간구의 노력일 것”이라 했다.

한편 “통일환경 변화와 기독교적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조정훈 교수의 강연 외에도 하종업 교수(승상대학)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선교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전했으며, 조기연 교수(아산대) 오성훈 박사(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제이미 김 교수(승상대학) 등이 함께 토론자로 수고했다. 행사 전에는 이원재 박사(기독교통일포럼 상임대표, 남산교회)가 개회사를 전하기도 했다.

총운영 기자

“남편을 풀어주세요”

지난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는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의 억울한 투옥을 호소하며, 그의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 선교사의 사모인 배 모 선교사(사진 가운데)가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홍은혜 기자

‘결혼·출산·육아=행복’, 종교계가 적극 이끌어야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저출산’ 주제로 제4차 세미나…김성건 명예교수 발표

한국교회 싱크탱크로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조일래 목사)이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사회 ‘저출산’ 문제를 놓고 그 해법을 찾아봤다.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 미래로”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특별히 김성건 박사(서원대 명예교수, 사회교육과)는 “한국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성건 박사는 최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7대 총단(의장 가톨릭 김희중 대주교) 대표들이 지난 2018년 4월 30일에 모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을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김희중 대주교의 언론 인터뷰도 소개했는데, 김 대주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젊은 부부들에게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개신교는 저출산 문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할까? 김성건 박사는 ▶신뢰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재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의 신학’이 필요하고, ▶‘성 혁명’ 시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사역’을 해야 하며 ▶종교적 사회화와 크리스천 미혼남녀들의 ‘남남의 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가 ▶쉼기는 마을 교회로서 공동육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건 박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국교회가 참신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교회 지도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상적 비판’을 극복한 바탕 위에 교회의 재정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를 기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쓰이도록 사역의 우선순위와 통상적인 교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신도들의 정성이 모아진 현금으로 이루어진 교회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 ‘전문화’를 반영하듯 이제는 교회의 공동육아나 이혼 위기 개정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인력, 영역 및 프로그램 등 제반 측면에서 한층 ‘전문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박사는 “저출산의 벽을 넘어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만이 아닌 민간(특히 종교계) 차원에서도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가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은식 기자

“백영모 선교사 투옥, ‘셋업’ 범죄가 확실!”

기성 총회 등 기자회견 경찰청에 탄원서 제출

필리핀 경찰 주도로 돈을 목적으로 누명을 씨우는 이른바 ‘셋업범죄’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성 총회(총회장 윤성원 목사) 소속 백영모 선교사 역시 같은 경우로 투옥됐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석방을 위한 활발한 연대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는 기성 총회 선교사는 “제발 아무 죄 없는 우리 남편

을 우리 가족에게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남편이 딸 앞에서 필리핀 경찰에게 끌려간 날부터 우리 가족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배 선교사는 “딸 아이는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그것도 학교 내에서 아빠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고, “저 또한 철창 안에 갇힌 남편을 볼 때마다 이러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밤에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남편이 보지도 못한 총기와 수류탄, 총탄을 소지했다고 거짓 서명을 한 경찰관 9명이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 남편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그녀는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대통령과 경찰청장에게 호소하고, “남편 백영모 선교사와 남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을 구원해 주기를 눈물로 청원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제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 선교사는 윤 총회장과 함께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청원서 전달에는 기성 부총회장 허재오 장로, 교단 총무 김진호 목사, 해외선교위원장 이형호 목사, 한우리 선교법인 이사장 윤창용 목사, 미션파워 이사장 이태곤 목사 사무총장 김영우 목사 등 백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함께 했다. 한편 백 선교사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필리핀 마닐라 안티풀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현지 경찰 측은 문재가 된 불법 총기류와 폭발물은 한우리선교법인 소유의 건물인 국제학교에서 발견되었고, 백 선교사가 경찰 출두 명령 우편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백 선교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전형적인 셋업 범죄에 당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셋업(Setup) 범죄는 여객기의 가방에 무기나 마약류 등을 넣은 후 현지 경찰이 신고해 검을 주면서 돈을 듣는 범죄로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자국민의 총기 소지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소지는 불법이라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윤 총회장과 백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백 선교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금된 ‘셋업’ 범죄가 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이 백 선교사 석방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홍은혜 기자

“한국선교, ‘연합’을”… KWMA 2018 세계선교대회 개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8 세계선교대회 및 제7차 선교전략회의(NCOWE 7)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수영로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1,625명의 선교사가 참여해 세계 선교 전략을 논의했다.

‘함께, 그 날까지’(마 24:14)를 주제로 열린 대회는 4차 산업시대의 선교적력을 모색하고 저녁집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를 위해 신동우 목사(KWMA 이사장)와 신화석 목사(KWMA 대표회장)는 해외 현장에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환영하는 메시지를 각각 전했다.

이번 대회는 침체된 한국선교의 현재를 점검하고 영역과 권역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여러 분야로 나눴지만 ‘함께, 그날까지’라는 주제처럼 학우는 단연 ‘연합’이었다.

한국세계선교연합회(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이번 선교대회에 대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국교회와 큰 연합의 특징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며 “신 유목민 시대라고 할 만큼 디아스포라 현상과 다문화 사회에서 복음을 활용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조언했다.

이번 선교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만큼 다양한 주제강의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선교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와 선교사들은 어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영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개발할 수 있을지 등 미래에 대한 준비와 현재의 선교환경을 점검하고 위기관리 대책방안을 세우며 디아스포라의 현상과 선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현재 선교 상황을 되짚었다.

선교전략회의 차원에서도 선교연합을 위해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전방개척선교를 비롯해 목양적 선교, 플랫폼 선교, 선교 거버넌스, NGO를 활용한 선교, 협회교회 동원, 비지니스(BAM 선교), 리더십, 여성 선교사, 통일, 난민, 디아스포라, 문화예술, 영성, 재정, 행정, IT(4차 산업), 멤버케어, 은퇴 등의 영역별 선교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들으며 정보를 얻었다.

권역별로는 동서남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중국, 대만·홍콩, 몽골, 일본, 북한, 한국, 중동, 동서유럽, 동남서중앙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북·중·남미, 카리브해, 호주·남태평양으로 지역을 세분화해 해당 지역 선교사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프로그램으로는 Key Note Speech, 각 주제발표, 영역별전략회의, 권역별전략회의, 선교대회가 있었다. 18일 개회예배설교는 신동우 목사(KWMA 이사장, 산돌중앙교회 담임), ‘Key Note Speech’는 조용중 선교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교적 도전’은 서동혁 교수(단국대 디스플레이공학과 교수), 저녁에는 로렌 커닝햄 목사(YWAM 설립자),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19일 새벽예배설교는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담임), 저녁에는 임현수 목사(큰빛교회 원로), 정민용 목사(Covenant Fellowship Church 담임)가 말씀을 전했으며,

20일 새벽예배설교는 윤원로 선교사(서부아프리카 선교사), 저녁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하령록 목사(Timhass 회장)가 메시지를 전했다. 21일 새벽예배설교는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가, 폐회예배설교는 신화석 목사(KWMA 대표회장, 안디옥 성결교회 담임)가 말았다.

영역별 강의에서 ‘파트너십과 선교현지 교회 선교동원’에 대한 발제를 담당한 이승일 선교사(바울선교회).

필리핀 사역은 “결국 어느 특정한 민족만 선교사로 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확신시켜야 된다”며 “선교사들이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가르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협력



1.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2018 세계선교대회 및 제7차 선교전략회의(NCOWE 7)에 모인 선교사들. 굿티비 제공

최되어 한국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교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이번 대회는 초교파적 협력과 연합사역을 주제로, 국제 선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교적 교회운동을 통한 한국 교회 부흥의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세계선교대회는 1991년부터 4년마다 개최

홍은혜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제68주년 6.25전쟁 참전용사 감사패 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용사들에게 감사 표시와 후손들에게 6.25의 의미 알리고자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위임목사)는 24일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에서 6.25 한국전쟁 68주년을 기념해 김남기(83·동작대교구), 강남현(90·영등포대교구), 백양환(85·남구로성전)집사 등 참전용사 3명에게 감사패를 드린다”며 축하했다. 참전용사들은 교회학교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교인들을 향해 거수경례로 화답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표를 표하고, 후손들에게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나라 사랑 정신을 알리고자 이 행사가 7년째 진행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생존해있는 참전용

노형구 기자



‘제28회 6.25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참석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모습.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참전용사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6.25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열려

한국군종목사단(단장 김성일 목사)과 한국기독교인연합회(회장 정경두 합참의장, KMCF)가 경기도 파주 오산리회자실 기념금식지도원(원장 권경환 목사)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역대 7:14)를 주제로 ‘제28회 6.25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를 개최했다.

군인교회 및 군선교관련기관이 후원한 대회에 전국에 있는 기독장병 15,000여 명이 참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뜻깊게 기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오직 성령으로’(행 19:1~7)를 주제로 한 성회 개막설교에서 “국군장병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꿈이요 미래”라 밝히고, “여러분 없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과

홍은혜 기자

한장총 제2회 한국장로교여성대회 성료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순미 장로, 이하 ‘한장총’)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한국장로교여성대회가 6월 22일 치러하는 교회(강서구 화곡동)에서 한국장로교여성지도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한장총 금년회기 주제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행 10:33)’이란 주제로 개최한 여성대회는 1부 예배에서 공동기도문으로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 가정과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를 하였다.

대회장인 김순미 장로는 대회사를 통

하여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된 후, 마치 평화가 다 이루어진 양 를 떠 있는 이 때에 우리 장로교여성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역사적 중대한 때에 여성들이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제2회 한국장로교여성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채영남 목사(한장총 직전대표회장)는 전도서 49~12월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

는 제하의 설교를 전했다. 설교에서 채

목사는 “마귀는 분열을 획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협력할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단들은 얼마나 되지 않는 숫자임에도 오히려 단합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큰 장로교 단들이 연합하지 못하여 힘을 잃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이기주의와 교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협력하는 한국장로교 여성지도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장총 대표회장인 유중현 목사는 격

려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고 밝히고, “한장총에서는 여교역자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여성들의 역할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영성회복을 통한 재부흥의 때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여성대회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예배 후 제2부 특강 시간에는 고 영일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가 ‘사회현상과 교회의 분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전했으며, 대회장 김순미 장로가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박용국 기자

예장합동 총회, ‘이슬람대책 아카데미’ 개최

이슬람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이슬람대책 아카데미’가 7월 5일과 6일 충청교회(담임 한규삼 목사)에서 열린다.

지난 해 이슬람대책아카데미가 국내 이슬람 관련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이슬람 관련 다양한 주제에 걸쳐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올 해 열리는 제2회 이슬람대책아카데미는 “이슬람과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점과 더불어 무슬림 전도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슬람 시아파

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아즈베리(Azberry) 목사를 강사로 초청할 예정이다.

아즈베리 목사는 이란인 이슬람 시아파 무슬림이었으나 영국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현재 웨일즈의 노르 교회(Noor Christian Fellowship)를 개척하여 약 200명의 이슬람 개종자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 영국스완시 대학교(University of Swansea)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고 스완지 바이블 칼리지(Swansea Bible College)에서 공부하였으며 스완지 바이블 칼리지와 런던 켄팅턴 신학교에서 이슬람의 현실과 대안”을 강의할 예

Kensington Temple’s Bible Institute of London)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번 강의내용은 7월 5일에 유해석 선교사(FIM국제선교회 대표)의 “기독교인은 이슬람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김신숙 선교사의 “이슬람의 현실과 선교적 대안” 그리고 아즈베리 목사의 “이슬람의 여성관”, “알라와 하나님”, “이슬람과 기독교 무엇이 다른가”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7월 6일에는 남경우 선교사의 “이슬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이혜훈 국회의원의 “한국이슬람의 현실과 대안”을 강의할 예

정이다.

본 이슬람아카데미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서 주최하며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비용은 속식을 하지 않는 일반 참가자는 2만원이며 자료집과 식사가 제공된다.

숙박 이용자들은 일인당 5만원으로서 자료집과 2인1실 숙박(조식포함)이 제공되며 식사가 제공된다. 숙박비용은 6월 26일에 등록 및 입금이 마감되어 제세한 문의는 총회교육출판국(02 559 5632)으로 문의가능하다.

홍은혜 기자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 김광수 발행인 장세규 편집인 김규진 인쇄인 허요섭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번호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편은행 1005-301-884992 등록번호: 서울 가 50089 등록연월: 1990년 7월 19일 간별: 일간

미주 기독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해외입양이 인권침해? 정확한 통계 제시해라”

예장통합총회 인권위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에 전국입양가족연대 목회자협 반박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영 목사)가 최근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외입양제도의 명암을 살피고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를 되짚어 본 가운데, 전국입양가족연대가 목회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에 대해 “일부 비극적인 모습만 전제인양 비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반대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해 관심을 모았다.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는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 ‘2018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모든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고 ▶해외입양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주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며 ▶긴밀하고 다급한 마음을 모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외입양이 선언문에 언급된 바, 한국전쟁 고아로부터 시작되었던 극도로 피폐해진 경제상황, 혈연증심의 유교사상, 국가로부터 방치된 국민들의 야만적인 삶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언문에서는 이런 고민 없이 무조건 해외입양에 대한 반성적 성찰 만을 언급한다”면서 “거기에 입양을 단지 사회적 미덕이라 는 짧은 표현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입양 가족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선언문 중, 수십년간 성공한 해외입양인 이야기로 덮어 온 현실이라는 문장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하고, “성공한 사람보다 더 많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양부모를 만나고, 그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선언문에는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의

도는 있지만 사람으로 양육되는 가정의 소중함은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해외입양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 바, 구체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해외입양인의 시각으로만 말한 것”이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독교적 인권 개념이 아닌 자유주의 신학에 기반한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인 인권 개념에 입각하여 입양을 바라보는 소수 목회자의 시각”이라며 비판했다.

때문에 협의회는 “선언문에 해외입양으로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입양당사자와 미래에 해외입양을 통해 동일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펼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외입양을 선진국 가정에 아동을 공급하기 위한 도구 또는 아동송출이라면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선언문에는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의

“참된 진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발표에 대한 전국입양가족연대 목회자협의회의 입장

대한민국의 해외입양은 선언문에 언급된 바, 한국전쟁 고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극도로 피폐해진 경제상황, 혈연증심의 유교사상, 국가로부터 방치된 국민들의 야만적인 삶 등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언문에서는 이런 고민 없이 무조건 해외입양에 대한 반성적 성찰 만을 언급합니다. 거기에 입양을 단지 사회적 미덕이라는 짧은 표현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입양 가족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거리에서 굶어죽거나 시설에서의 집단생활이 고아들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국내입양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그들 중 일부는 해외입양을 통해 새로운 부모를 만났고,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았으며, 교육의 기회를 얻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입양은 사회적 미덕일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언문 중, 수십년간 성공한 해외입양인 이야기로 덮어 온 현실이라는 문장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많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양부모를 만나고, 그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에는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의도는 있지만 사랑으로 양육되는 가정의 소중함은 외면합니다.

는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입양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종교인이 주장하는 ‘가부장제-서구우월주의-기독교 자선 전통이 해외입양지’라는 논리는 지난 수십년 간 사회주의 폐미니즘 계열에서 입양을 펼쳐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받았다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인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부정적인 사례들을 들추어 일반화 시키는 흐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예장 통합 목회자 및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입양계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시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온 은혜들에 감사하는 입장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이 비추었음에도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그늘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날선 비판과 정죄의 태도가 아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학습을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서 비춰 주시는 진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요, 목회자요, 교회로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입양아동·친생부모·입양부모 모두 하나님 형상”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의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예장통합총회 인권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외입양제도의 명암을 살피고 입양 당사자들의 인권 문제를 들어왔다. 또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2018 총회인권선교정책협의회 선언문]

2018년 오늘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픔과 가려진 진실의 일면에서 있음을 고백한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해외로 입양보내는 일에 대해 반성적 성찰 없이 사회적 미덕으로만 인식해온 우리의 과오와 그 과정 중에 아픔을 겪은 입양 당사자들의 고통이 지금 우리와 마주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

음 받았기에 누구도 출

생과 형편의 이유로 고통을 받거나 차별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믿는 신앙 고백에 터잡아 우리는 해외입양과 입양당사자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입양 당사자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을 거부한다.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입양삼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받는 상처를 한국교회는 그동안 들보지 못했다. 입양아동이 겪어왔던 “그나라”에서의 차별과 친생부모와 입양부모가 “이 나라”에서 직면해야했던 아픔을 수십 년간 성공한 입양아 이야기로 덮어온 현실에 대해 교회는 반성하지 않았다. 한국교회가 해외입양 문제에 있어 무지와 관찰자의 시각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회개한다. 아울러 입양삼자(Adoption Triad) 모두가 경험하는 이별과 상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이제 우리는 입양삼자를 향한 편견과 차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훼손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과 저항에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사회의 미성숙과 개인의 죄성이 거리낌없이 훠드는 배제의 논리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해외입양에 관하여 정부가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주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입양은 국제적 네트워킹을 가진 사설기관들이 많은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는 사설기관들이 송출국의 아동을 공급하고, 수령국의 개인 및 기관들이 입양절차 전반에서 양부모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양부모 자격 부실심사, 입양아동

에 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초가 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아동의 송출과 수령의 편의성에 집중된 법과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나아가 해외입양이 필요 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요구한다.

한국전쟁 이후 혼혈아동을 대상으로 한 해외입양이 이루어졌고, 이후 빙곤, 실종, 유기 등으로 흘러든 아동으로까지 확대되어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최대 입양 송출국의 불명예를 안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제도적, 법적 한계가 기여한 바가 크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마땅한 책임을 묻는다. 동시에 이 사회가 함께 기르고 책임져야 할 아동의 삶과 친생부모의 편안한 환경을 해외송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전가해버린 국가의 책임을 제자리로 돌릴 것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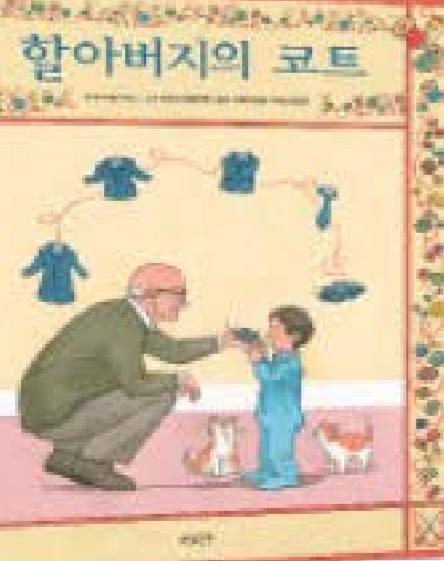
하나, 우리는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을 모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관한 정부의 비준을 촉구한다.

1993년 5월 29일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 제17차 회기에서 서명된 상기협약은 해외입양에 있어 아동 최우선 원칙과 국제법상 인정되는 아동의 기본권 보호장치 마련, 비정상적 혹은 준비되지 않은 해외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이 협약을 통해 해외입양의 수단으로서 해외입양을 수용할뿐, 선진국 가정에 아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아동송출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3년 이 협약에 서명만 하였을 뿐 국내 법과 동일한 구속력을 담보할 비준절차는 현재까지 밟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비준지연을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저버린 국가의 적극적 자위의무 위반으로 인식한다. 아동의 인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마땅히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이며, 친생부모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우리는 오늘 해외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인권의 존엄함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을 박탈하거나 배제하는 모든 제도를 비판하며, 이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입양삼자는 물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선한 동역자들과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말과 문서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이제 우리가 돌아갈 교회와 노회 및 총회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의 선언은 곧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기도는 곧 우리의 실천이다.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남고 해에서 더 이상 못 입을 치정이 된 코트를 버렸나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네티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의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즐 만해.”

마침고, 오래되고, 물들었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했어요.
전통한 명품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복 디자이너·보자기 미디스트 이호재



한국 서점 및 해외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번호 02-724-7033